

2025 년 2 월 23 일 “(주님을 아는 지식 8)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엡 3:16-19)

오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삶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뿌리 내려야 할 실체는 사랑

바울은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터를 잡다 = 견고히 하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든지 견고한 사랑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비로 사랑이 잘 안 되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이 목표를 견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사도가 가진 사랑의 이해

에베소는 지역특성상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복잡하게 얽힌 사랑이야기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사랑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인들은 이런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언약의 상대를 위해 존중하며 베푸는 선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헌신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영향 받은 사랑의 수준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사랑의 참 위력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받아보아야만** 아는 사랑입니다.

[3] 참 사랑에 못 미치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 때문에 삶에 고민들이 생깁니다. 비록 잘 안 될지라도, 오늘 더 사랑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 받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의 불만은 저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때는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그도, 나도 주님의 크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충만하여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그분을 스스로 채우고 있는 충만한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롬 5:5).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워지다 보면 나 또한 언젠가 이 사랑을 흘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보다 오히려 주님 사랑을 더 알고 체험하기를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매일 펼치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2. 살면서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